

## 가사노동의 가정교육적 의미

윤 숙 현<sup>†</sup>

호남대학교 자연과학부 생활과학전공

### The Meaning of Housework for Home Education

Sook Hyeon Yoon

*Major in Living Science, Dept. of Faculty of Natural Science, Honam Univ.*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aning of housework for home education. The methodology applied in this study bases on reinterpretation of references concerned with 'housework' and 'education'.

The meaning of housework for home education can be analyzed in three aspects, that is, individual, domestic, and social aspect. Houseworkers be capable of developing their physical, emotional, cognitive, and social ability through houseworks. What is more, they are to internalize the culture of home and society.

The meaning of housework for home education, however, has gradually been forgotten in people's mind with the appearance of rationalism of modern society. The particular process of modernization in our country has uncovered the negative aspect of housework and continually emphasized that point. Thus now people consider housework as only something troublesome.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for the purpose of our 'noble life as man', we should recover an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meaning of housework for home education. (*Korean J Human Ecology* 1(1) : 14~26, 1998)

KEY WORDS : housework, home education, rationalism, noble life.

#### I. 서론

지금까지 이루어진 가사노동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지만 한

---

<sup>†</sup>Corresponding author : Dept. of Natural Science, Honam Univ.,  
59-1 Seobong-dong, Kwangsan-gu Kwangju 506-714, Korea  
Tel : 062-940-5413, Fax : 062-940-5005  
E-mail : shyoon@honam.honam.ac.kr

가치의 공통적인 특성을 보인다. 그것은 이들 연구에서 좀더 적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동일한 량의 가사노동을 수행하게 하거나, 혹은 같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좀더 많은 량의 가사노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노동을 효율화시키는 데 방향을 맞추어 왔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노동경제의 원리에 입각하여 가사노동을 이해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를 충분히 부각시키지 못하게 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예컨대, 동선연구를 통하여 현재의 부엌구조에서 가사노동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거나 혹은 가사노동이 여성에게 전담됨으로 인하여 성에 따른 불평등구조가 심화되었음을 실증연구를 통하여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따라서 현재의 가사노동과 관련된 현상을 문제상황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이 상황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윤숙현, 문숙재 1997b).

그러나, 가사노동에는 이와 같은 부정적 시각의 의미만이 아니라 긍정적 시각의 의미가 있으며, 가사노동의 긍정적 의미가 가장 명백하게 나타나는 가정생활의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가사노동이 갖고 있는 가정교육적 측면일 것이다. 가정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의도적 및 비의도적 교육으로서, 가족의 성장발달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가사노동의 부정적 측면이 강조될 때, 가사노동이 지니고 있는 교육적 의미는 망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교육의 일차적 대상을 자녀로 볼 때, 자녀에 초점을 맞춘 가사노동 연구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녀가 담당하는 가사노동의 분담에 대한 연구(Lovett, Abdel-Ghany 1988; Benin, Edwards 1990)가 주종을 이룬다. 이들 연구는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연구(Rettig, Metzger 1986; 최수선 1995)나 가사노동에 투여하는 시간과 가족원간의 평등주의의 정도를 연관시킨 연구(Doran, Scannell 1987)와 맥을 함께 한다. 한편, 노동의 혼련과정으로서 자녀의 가사노동을 다룬 Witiner(1980)의 연구나 자녀의 가사노동이 갖는 중요성과 의미를 제시한 White와 Brinkerhoff(1981)의 연구는 자녀의 가사노동이 갖는 교육적 의미를 밝힌 연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실증연구를 통한 개인의 응답을 기초로 하여 가사노동이 지니고 있는 교육적 의미를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처리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이 지니고 있는 가정교육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가사노동의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전통사회를 중심으로 가사노동이 내포하고 있는 교육적 의미를 찾아볼 것이며, 이들 전통사회의 가사노동이 보여주는 가정교육적 의미가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이러한 변화의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은 사회적 위기와 함께 부각되고 있는 가정의 위기를 이해하고 방지하는 데 기초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가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 가사노동이며, 가사노동을 제외시킨 가정생활이란 개념상으로는 존재할 수 있겠으나 사실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사노동의 가정교육적 의미를 찾아보는 일은 가사노동의 상황적 조건을 세밀히 기술하거나 혹은 개인의 의식에 바탕을 둔 실증연구를 통하여서보다는 관련된 자료에 대한 재해석작업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는 성격의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의 교육적 의미에 관한 자료를 재해석하는 방식을 연구방법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 II. 가사노동의 가정교육적 의미

가사노동의 가정교육적 의미는 개인적 측면에서는 가사노동 담당자의 인적 능력의 향상이라는 의미로 설명될 수 있으며, 가정적 측면에서는 가족원간의 통합을 도모하고 가정문화를 형성 및 전수한다는 의미로,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회문화를 형성하고 전수한다는 의미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가사노동 담당자의 인적요소로 포함되는 신체적·정서적·인지적 및 사회적 능력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문숙재, 채옥희 1986). 예컨대, 청소를 통하여 가사노동 담당자는 자신의 신체조건에 적합한 방식으로 힘을 조절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때 개인은 적절한 근육의 움직임과 바른 자세를 통하여 자신의 신체조건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기술을 습득하게 되며, 자신의 선호에 맞는 방식과 작업환경에서 노동을 완결하는 것을 통하여 정서적인 안정을 얻게 된다. 또한, 식사준비와 같은 가사노동을 통하여 식품재료들간의 배합과 조화에 대하여 습득할 수 있으며, 가열시 재료의 변화, 저장의 용이성 등과 같은 지식을 확대시킬 수 있고, 조리기기의 원리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가사노동은 혼자 또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통하여 의사소통의 기술, 의견충돌시의 처리방식, 인내심, 책임감과 같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울 수 있게 하며, 전체과정의 추이를 계획하고 진행 및 조절하는 관리능력을 습득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자녀의 가사노동은 부모의 감독 하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교육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Witiner 1980).

가사노동의 이러한 특성은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의 가사노동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실증조사를 실시했던 White와 Brinkerhoff(1981)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다. 그들은 자녀의 가사노동이 갖는 의미를 책임감의 발달과 같은 발달론적(developmental) 의미, 그 집에 사는 대신 가족을 돕는 것이 의무라고 보는 호혜적 의무(reciprocal obligations)로서의 의미, 가사의 방법 취득에 수반되는 과업학습(task learning)으로서의 의미, 자녀의 가사노동이 부모에게 필요한 도움이라고 보아 자녀가 아닌 부모측에서 설명하는 비본질적(extrinsic) 의미의 주된 네 가지 의미로서 설명하였으며, 그 밖의 의미로서 자녀가 용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 등을 제시하였다. 이들 의미는 부모들이 자녀의 가사노동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치를 짐작하게 해준다.

한편, 가사노동은 매일매일의 의식주생활 및 육아를 통하여 특정의 생활양식을 형성하며, 특정 생활양식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가교의 역할을 한다. 부모는 양육의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물려받은 삶의 의미(그 의미는 부모 자신이 의식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를 자녀에게 전수하며, 자녀는 부모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되어 지금의 부모가 내면화하고 있는 삶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내면화하게 된다. 이렇게 내면화된 삶의 의미는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며, 이것은 다음 세대의 자녀에게 또 다시 전수된다.

삶의 의미의 '전수'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자녀양육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것은 그것이 자녀의 '가정교육'과 관련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Oakeshott(1991)에 의하면, 가정은 단순히 자녀의 출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며, 그것은 새로 태어나는 세대를 인간의 무대로 끌어들이는 초기교육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인간의 삶에서 전수가 중요한 이유는 개체로서의 인간은 결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데에 있다.

모든 인간은 가족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삶의 방식을 다음 세대에까지 지속하게 하며, 동시에 관심과 목적, 정보, 기술 및 활동들을 영속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집단은 그 본래의 삶을 잃어 버리게 된다. Dewey가 말한 바와 같이 인간에게 있어서 단순한 신체적 성장, 생명을 이어나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집단의 삶을 재생산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으며, 의도적인 노력과 힘들여 짜낸 지혜가 필요하다. 교육은 사회집단의 목적과 관습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것에 전혀 무관심한 상태로 태어난 존재들로 하여금 그것을 의식하게 하고 그것에 능동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해주는 것이다(Dewey, 이홍우(역) 1987).

Dewey가 말한 교육은 물론 일반적인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교육의 이상적인 형태는 '사회적 경험'의 형태를 띤 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그의 말은 가사노동을 통한 가정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언젠가는 죽기 마련이며, 그는 오로지 그가 남긴 정신적 유산 속에서만 영원히 살 수 있다. 이 정신적 유산이 영속됨으로써 인간을 영원히 살도록 해주는 것이 교육이며, 이러한 의미의 교육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기초를 이루는 것이 가정교육이다.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그들의 부모로부터 가정생활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배울 수도 없고, 계획적으로 가르칠 수도 없는 수많은 정신적 유산을 물려받기 시작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사노동은 개인적, 가정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구성원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교육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이와 같은 가사노동의 교육적 의미는 인류의 삶을 통하여 면면히 이어져 왔다.

### Ⅲ. 가사노동의 교육적 의미 변화

#### 1. 전통사회 가사노동의 가정교육적 의미

가사노동의 가정교육적 의미는 근대사회 이후 점차 가사노동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점차 약화되어왔다고 보겠으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볼 때 전통사회가 현대사회에 비하여 좀더 강한 가정교육적 의미를 드러내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가사노동의 의미를 [禮記]와 [內訓] 등의 기록을 중심으로 찾아본 윤숙현(1996b)의 연구에서는 우리 전통사회의 가사노동이 단순한 생명유지를 위한 활동을 넘어서서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첫째, 전통사회의 모든 가사노동에서는 근검의 태도가 강조되었다. 의복과 음식을 만들며, 집안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등 모든 가사의 수행에서는 과분한 욕심을 억제하고 마음과 성의를 다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는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태도를 이루게 된다. 둘째, 가사노동을 통하여 사회 전체에 통용되는 규범인 효를 구체적으로 실천하였는데, 모든 가족원은 자기의 주어진 역할에서 효에 협조해야 하였다. 이와 같은 효의 실천은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기초를 이루게 된다. 셋째, 가사노동은 가족원으로 하여금 그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개인이 아님을 경험하게 하였다. 집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공동작업은 집단의 공동체 의식을 내면화시켜주었고, 이러한 가

즉 공공의 가사노동을 통하여 자녀는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자기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

'습씨의 문화'로 총칭되었던 전통사회에서는 가사노동을 통하여 세대를 이어 전수되었던 기술의 학습이 이루어졌음은 물론이고, 가사노동의 담당자들이 근검의 태도, 효, 공동체의식을 강화시킴으로써 균형잡히고 절제된 삶을 지향하게 되었다는 데서 좀더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 사람들은 가사노동을 통하여 사회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자신의 것으로 체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전통사회 가부장권의 핵심은 도덕적 규제의 권위에서 찾을 수 있으며, 조선시대의 문중의 힘이란 바로 가정의 도덕률과 집행력이 확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서병숙 1991). 유교이념의 조선사회에서는 모든 종류의 가사노동행위가 다양한 생활규범으로 정착되었으며, 규범은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된다. 이에 따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의식하거나 혹은 의식하지 못하거나간에 개인의 모든 행동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을 따르려는 경향을 갖게 된다.

사회적으로 지향하던 '君자의 道'나 '德'은 당시의 자녀교육에서도 그대로 강조되어서 효나 충과 같은 윤리적 덕목이 부족할 때 자녀를 자녀로 간주하지 않는 것을 '참된 부모의 도'로 보았다(윤숙현 1996a). 자신의 뜻에 맞고 마음에 맞는 자녀보다는 사회의 지향 방향에 맞는 자녀를 자녀로 인정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경향은 한 개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집단적으로 고안해온 제도적 장치들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이홍우 1993). 전통사회의 가사노동은 사회제도적 의미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따라서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서 '禮의 구현'이라는 의미가 부여되었으며, 이는 이론과 실천윤리의 총체를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는 자기자신의 수양이나 일상적인 의식주 생활의 범주로부터 시작하여, 大禮, 더 나아가서는 우주의 원리에까지 미치는 철학적 문제로 이해될 수 있다(이상욱 1991).

흔히들 전통사회에 대해서 현실의 불만을 외적 조건보다는 자신의 내부에서 찾게 함으로써, 특히 여성에게 불평등을 가져오게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조혜정 1982),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이와 같이 불평등한 사회구조는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사회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더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당시의 여성교육이 남성에 대한 교육에 비하여 인간교육에 관심을 갖지 않았으며, 품행교육과 역할교육을 근간으로 했다 하더라도(서봉연 1982), 이러한 교육들이 궁극적으로는 인간교육의 한 부분을 이룬다는 점에서 여성교육 역시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전통사회 가사노동은 동족집단이나 사회에 의하여 암묵적으로나 혹은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훈련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고 하겠다.

전통사회 가정교육에 관한 관심은 당시 이루어졌던 태교로부터 찾을 수 있는데, 태교의 시작은 부부의 만남 혹은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따라서 어떤 집안의 출신인가가 배우자 선정의 중요한 요건이 된다. 자녀의 출산은 태일이나 금기사항 등을 통하여 가장 좋은 자질을 갖춘 자녀를 출산하기 위한 조심스러움이 강조되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앞으로 탄생할 아기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태교를 했는데, 부친의 태교에 관하여 師朱堂 李氏의 [胎教新記]에서는, “부친의 청결한 마음가짐은 모친의 10개월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모친의 태교에 관해서는 병허각 이씨가 지은 [閩閩叢書]나 [胎教新記], [東醫寶鑑] 등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의 내용을 볼 때, 전통사회에서 태교가 보편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이차숙 1991). 자녀는 어떤 개인의 자녀라기보다는 더 큰 집단의 자손이었으며, 따라서 임부뿐 아니라 전체 가족원이 懷妊의 순간부터 넓은 의미에서의 교육에 힘을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가사노동의 가정교육적 의미는 전통사회 전반에 걸쳐 강하게 작용하였으며, 태교로부터 시작하여 양육의 전과정을 통하여 전체 가족원에 의하여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조심스럽게 이루어졌고, 가족과 사회에서 일관성있게 수행되었다.

## 2. 근대사회 이후의 의미 변화

가사노동의 가정교육적 의미는 산업혁명과 함께 이루어진 근대사회로의 이행으로부터 크게 변화되어왔다. 가사노동의 기술은 산업발전의 결과 점차 발전되어 왔으나, 전통사회에서 담당하였던 가사노동의 가정교육적 의미는 근대 이후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점차 약화되어 왔다.

산업혁명은 직물공업, 탄광업, 제철공업 및 철과 금속의 가공업, 기계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생산과정에 기계가 도입되고 공장화가 이루어지면서 노동자들은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되어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작업장소와 거주장소를 분리시켜 전통적인 생활습관으로부터 단절되었다(파울리니, 한정숙(역) 1994).

또한 노동과 가족 간의 관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서 가족생활이 구획화되었다. 가족의 시간표는 산업구조에 따라 조절되어야 하였고, 가족생활 안에서 거의 구분되지 않았던 노동과 교육, 오락 등의 활동이 분화되었다. 이전까지 가족구성원 전체에게 공유된 장소였던 가정은 이제 개인별로 분리되어 남자는 공장이나 사업장으로, 여자는 가정, 그리고 아동은 학교나 놀이터로 각각 흩어지게 되었다(버어, 최연실(역) 1995).

이에 따라 근대 이후 사회는 외적으로 자율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회의 노동현상은 생산노동의 소외와 구체적 생활을 외면하는 추상적 사회로 변화되어 왔다. 자율을 표방하며 생활의 구체성을 외면하는 추상적 사회에서 발생하는 가정 내부의 문제점들은 사적인 문제로 간주된다. 추상적 사회에서는 생산의 결과가 인간다운 노동과 생활의 건설에 활용되지 않고, 인간의 노동을 하인노동으로 변화시키고, 노동현장에서 위계에 따른 분열과 위화감을 가져오게 한다. 추상적 사회에서는 자율성에 대한 욕구만 있을 뿐, 노동을 통하여 모색될 수 있는 삶의 질에 대한 통찰과 목적의식이 상실되었다(김성환 등 1994). 사람들은 자신이 노동의 주인이 되는 가사노동보다는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는 임금노동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삶의 목적에 대하여보다는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가정생활과는 분리된 현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가정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사노동은 하찮은 것이라는 모순적인 인식을 하게 된 것이다. 가사노동과 가정생활은 개념적으로는 얼마든지 구분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두 개념을 구분하는 것은

인간이 지적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다만, 가사노동과 가정생활이 개념적으로 구분된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이 둘이 사실적으로 분류된다고 생각하게 된 데에 근대 사회 이후의 오류를 찾을 수 있다(윤숙현, 문숙재 1997a).

이와 같은 근대사회 이후 노동의 의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과정이 Marx에 의하여 설명된다. 즉 Marx에 의하면, 노동은 인간이 능동적으로 자연에 관계하는 것이며, 인간 자신의 창조를 포함해서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Fromm 1961). 노동은 인간의 속성이며,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한다. 그러나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임금노동이 중시되면서, 임금노동은 인간의 자아를 실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소외시켜 버렸다.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노동 속에서 결코 인간은 자아의 실현을 경험할 수 없게 되었다. 현대의 대부분의 노동의 가치는 인간의 본성에 바탕을 둔 자아의 실현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그 가치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라는 경제적 가치에 의하여 평가된다.

인간은 노동으로부터 소외시킨 경제적 가치라는 잣대를 가사노동에 끌어들이므로 인간은 가사노동으로부터도 소외되게 되었다. 가사노동에 있어서도 역시 집 바깥의 구조를 고스란히 가사노동의 지침으로 옮겨다 놓게 되었고 가사노동에도 노동의 생산성이나 경제적인 화폐단위로서의 환산여부에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가사노동의 본질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가치를 절하시키게 되었다(이길표 등 1993). 그리하여, 자급자족적인 생산이 주를 이루었던 봉건사회까지만 하더라도 가사노동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한다든지 또는 가사노동의 담당자가 고립감을 느낀다든가 하지는 않았으나, 교환가치가 중시되는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오면서 가사노동의 가치가 저하되고 노동의 담당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이 증대되어 왔다(정영금 1993).

가사노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가족원간 가사노동의 역할분담형태에도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이 담당해왔던 다양한 가정교육적 의미를 약화시키게 하였다. 따라서 전통사회의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취득되었던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기능의 학습이 현대사회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대사회의 가족은 외부적인 위기상황 속에서도 존립할 수 있는 기능성이나 통합성, 적응성, 그리고 가사노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던 세대간의 문화전수기능이 약화되어왔고, 이와 같은 현상은 현대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부문제나 부모자녀간 문제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현대 우리사회의 젊은 부부는 신체적·생리적으로는 전 세대에 비하여 조숙한 편이지만, 심리적·정서적으로는 매우 미숙하고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높은 성숙의 불균형상태라고 진단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젊은 부부의 미숙성으로부터 가정생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내심이나 문제를 보는 안목, 판단기준 등이 결핍됨으로써 성인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시형 1994).

또한, 부모에게 있어서 가정생활은 자녀생산이나 양육의 기능보다 즐거움의 추구가 우선시되어 왔으며(손봉호 1996), 이에 따라 부모는 공교육기관에 모든 교육을 전담시키고 가정교육을 포기하게 되었다. 더욱이 현대사회의 핵가족화 현상은 자녀양육방식에 관한 지혜가 부모세대로부터 자녀세대로 전수되는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많은 시행착오와 세대간의 갈등을 초래하였으며,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사회화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점차 어려워지게 하였고, 부모의 가정교육과 자녀가 학교, 친구, 대중매체 등을 통해 습득하는 내용 사이에 불일치가 커지면서 세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함인회 1993). 특히 청소년의 취향에 맞추어진 대중매체들은 청소년들의 정서세계를 기성세대와 점점 더 멀어지게 함으로써 한 가정 속에서 가족원들간의 정서적 유대를 약화시키고 있다(전병재 1994).

그러나, 제대로 된 가정교육은 학교의 공교육이 제구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바탕이 되고 있으며, 학교교육이 기능교육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여건을 감안할 때 가정교육이 보다 시급한 문제임을 알 수 있겠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대부분은 실제적으로 가사노동과 결합되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 사회 이후 가정 외부의 노동에 대한 가치가 강조되고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가 저하되면서, 이와 함께 수반된 결과로서, 가사노동이 담당해왔던 많은 교육적 의미가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 3. 의미 변화의 요인

가사노동의 가정교육적 의미의 변화 요인은 크게 근대화에 따른 개인주의적 합리주의로부터 찾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근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상황조건도 변화의 한 요인으로 들 수 있다.

근대사회에 들어서서 사람들의 인식을 크게 바뀌게 하였던 합리주의사상은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으나, 이와 같은 서구의 근대적 합리주의 사상이 가정에까지 침투되면서 가사노동의 의미가 변질되었고, 이에 따라 가사노동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에 혼란을 초래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한편으로는 가사노동이 인간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가사노동이 인간의 삶을 구속하는 족쇄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윤숙현, 문숙재 1997a).

가사노동과 관련하여 근대적 합리주의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가사노동의 의미를 오로지 '이성'에 의해서 파악하려고 한다는 데 있다. 합리주의자의 사고는 '이성'의 권위 이외에 다른 어떤 권위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현대 세계에서 합리주의자는 그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그것과 싸워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합리주의자는 일체의 권위, 편견, 전통, 풍속, 습관 등을 '적'으로 삼는다. 합리주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가 그것의 가치를 입증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이 아무리 많은 세대를 두고 존재해왔다고 하더라도 이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다. 우리에게 익숙하다는 것은 하등의 가치를 가질 수 없으며, 이성의 엄밀한 분석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Oakeshott 1991).

이러한 사고방식은 가사노동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합리주의자가 볼 때, 수십 세기를 거쳐 오늘날과 같은 가사노동의 형태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근대적 합리주의의 발달은 과학 우선주의, 물질주의, 물량주의와 개인주의를 촉진시킴으로써, 개인의 이익이 집단의 이익보다 앞선다는 원칙의 이기주의를 낳게 하였고(김동일 1994), 따라서 가사노동이 과학적 효율성, 물질적 이익, 개인의 욕구 충족 면에서 다른 노동에 비하여 우월



한 위치에 있지 않는 한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높게 인정할 수 없게 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화를 경험했던 다른 나라와는 다른 특수한 경험세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특수성은 가사노동의 가정교육적 의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즉 우리나라 근대화과정의 특수성은 이전 사회의 유교적 전통의 잔재 속에서 일체의 외압으로부터 기인된 근대화라는 점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로부터 시작된 근대화는 이후 수십 년 간의 급속한 사회구조 변동을 경험하면서 우리나라의 독특한 특성을 보여왔다.

전통사회의 유교적 전통으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자녀로 하여금 사회에 대한 적응성을 키워주는 가정교육, 즉 가족원의 사회화기능이 특별한 중요성을 지녀왔다. 우리나라 사회의 구조적 특성의 하나로서 언급되는 가족주의는 가족에 관련된 가치관이나 윤리가 사회도덕의 최고정점에 있으며, 바로 이 원리에 의하여 가족 이데올로기는 가족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구석구석까지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가족원의 사회화 기능에 지장이 온다는 것은 전체 사회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뜻한다.

장현섭과 박영숙(1994)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을 사회적 합의나 도덕적 상식, 또는 사회적 통합이 상당 부분 깨어진 상태로 파악하면서, 이와 같은 무규범 상황의 근원을 가정교육의 부재에서 찾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현재 30, 40대에 해당하는 연령층은 다양한 역사적 변동을 경험해온 세대로서, 이들의 성장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을 파악하게 해준다.

현재의 30, 40대층은 그 부모세대가 유교적 문화, 일본의 군국주의를 경험한 세대이며, 일본이 주도한 세계 제2차 대전을 경험했고, 독립이 되고 나서는 남북간 이데올로기에 기초를 둔 내전을 경험했으며, 전쟁 이후에는 정치적 혼란을 경험했던 세대이다. 또한 그들의 부모세대가 40대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을 본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자본주의원리 하에서 자유경쟁을 통한 사회적 상승이동이 가능해졌다. 이때 국가와 국민의 모든 관심은 경제적 발전에 집중되었다. 개인적 권리나 가정적 행복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경제 발전을 성취해야만 했으며, 경제 이외의 다른 분야들마저도 경제성장의 논리에 의하여 지배되었다.

지금의 중장년층은 바로 이 부모 밑에서 자라났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강해지기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경쟁하여 출세하여야 하고,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학교에 입학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경험을 통하여 체득하였다. 이들에게 있어서 공부를 한다는 일은 모든 가정생활이나, 사회적 의무로부터 면죄부를 받는 것이었다. 부모의 권위도 친척간의 유대도, 지역공동체에서의 예절이나 의무도, 국가에 대한 사랑도 공부를 위해서라면 쉽게 포기되었다. 공부하는 자녀는 무엇이든 자신의 뜻대로 다 할 수 있었고, 학교공부의 열기는 대단하였지만 가정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도적인 가정교육이 무시된 것 이상으로, 자녀는 온갖 종류의 가사노동으로부터 점차 멀어져갔다. 더욱이 부모가 가사노동에 대하여 갖게 된 부정적인 관념은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되었으며, 자녀의 성장과정을 통하여 이와 같은 생각은 점차 고정화되었다. 그리하여 가사노동은 하찮은 것으로 여겨졌으며, 간혹 그렇다고 느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사노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무능한 생활인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근대화과정의 진전과 함께 급속하게 이루어진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전체 삶에서 차지하는 가사노동의 비중을 약화시키는 데 일조하였으며, 근대적 합리성에

입각한 경쟁위주의 가치관은 자녀교육의 의미를 왜곡시키게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우리나라의 상황조건—즉 가족중심주의의 유교적 가치와 외압에 의한 근대화과정의 특수성—은 근대적 합리주의와 합쳐져서 독특한 형태로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쳐왔고, 이에 따라 가정교육 자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가사노동이 가지고 있는 가정교육적 의미는 그 힘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의 가정교육적 의미가 근대사회 이후로 퇴색되어 왔다고 보고, 몇 가지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전통사회에서 나타나는 가사노동의 가정교육적 의미를 살펴보았으며, 이의 변화상을 찾아보았다. 특히 이와 같은 변화를 초래하게 된 이유로서 근대적 합리주의와 우리나라 근대화과정의 특수성을 들었다.

개인적인 욕구충족에 적합하지 못하고, 금전적 이익이 없는 가사노동은 이와 같은 조건 속에서 점차 교육적 의미를 잃게 되었으며, 가사노동이 교육적 의미를 잃어감에 따라 가정의 의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위협받게 되었고, 가사노동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자질을 포기하게 됨에 따라 현대 가정의 부모자녀문제, 부부문제의 증가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기여해왔다.

오늘날 가사노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가사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윤숙현, 문숙재 1997b). 그러나, 가사노동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인간의 삶에 대한 가사노동의 긍정적 역할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단적으로 말하여 가사노동을 하였다고 하여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사노동을 하지 않은 인간이 참된 인간이 될 수 없다. 즉 가사노동이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데 있어서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정신을 갖추었다고 하여 인간의 신체가 없는 존재 모두가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이 되려면 반드시 정신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가사노동의 가정교육적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식의 차원에서, 사회적인 가치척도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가정생활의 능력을 갖춘 사람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관계의 질'을 중시하는 새로운 가치인식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유영주 1994), 금전적 척도의 한 가지 잣대에 의하여 평가하는 기준을 다양화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현대사회와 같이 개방화되고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될수록, 인간적 사랑과 유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며, 특히 한 인간을 고귀하게 키우는 부모의 역할이 다른 어떤 생산활동보다 더 중요한 일이며 어려운 일이라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윤숙현 1995a). 가족원의 복리를 위한 가사노동이 다른 어떤 생산활동보다 더 의미있는 일이라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는 부부간의 결합의 기초를 선한 의지, 상호 도움, 그리고 협동성에 기초를 둔 가정이 인간사회

의 기본질서를 유지하게 해준다고 보아, 가계의 재산보다는 가장의 역량을 중시했던 Aristoteles의 'oikonomia'의 개념(윤숙현 1995b)으로부터 가정의 원형을 찾는 일이 될 것이다. oikonomia에 입각할 때, 물질적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신생활을 영위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면 충분하며, 이러한 생각은 가정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해되고 내면화되어야 한다. 가정은 사욕이 무한히 방출되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사욕을 가장 자연스럽게 억제하면서 상대방의 행복과 자유와 존엄성을 고려하는 곳이다(윤숙현 1997a).

이제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기업의 원리와 가정의 원리의 두 가지 다른 원리 중 어느 하나에만 치중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 두 가지 원리를 함께 중시해야 할 것이다(고영복 1994). 그리하여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사회생활의 무능에 대하여서는 위기감을 느끼면서도, 가정생활의 무능에 대하여서는 관대하였던 관습이 보다 균형잡힌 모습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실천의 차원에서, 생활능력의 교육에 초점을 두어야 하겠다.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등과 같은 가족문제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포함하여, 일상적인 생활의 교육에도 중요성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문제가정의 처치보다는 정상가정을 중심으로 한 예방의 차원에서 생활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전체 가족원이 일상생활에 장애를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옷을 다루고 빨래를 하고 음식을 만드는 등의 일상적인 의식주생활의 해결능력은 물론 장기적인 삶을 설계하여 자신의 노년기 생활수준을 예측하고, 그에 준하여 현재의 소비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는 능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가정생활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 결과를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생활의 여러 현상—예컨대, 호칭과 언어습관, 의식주생활의 특장현상, 의례행위 등—이 인류문화의 존속이라는 측면에서 지녀왔던 의미를 찾아내어 이 의미를 일반언어로 드러내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가 축적될 때, 가사노동이 인류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총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이 제반 사회제도와 정책적 배려와 수반되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사노동의 가정교육적 의미가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학교에서 보내는 자녀의 생활시간과 내용이 제도적으로 조정되지 않는다면, 가정생활시간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하여 가사노동을 통한 교육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종류의 노동에는 인간의 조건에 부합되는 중요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모든 노동은 노동과정에서의 고통과 노동을 통한 충족감이라는 이중성을 지님으로써 효율적인 훈육의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사노동은 가장 기본적인 매일의 생활능력을 훈련시켜주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한 부분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1. 고영복(1994).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가족상. 열린사회와 가족, 유네스코 한국위원회·한국여성개발원, '세계 가정의 해' 기념세미나 자료, pp. 1-14.
2. 김동일(1994). 노인의 설 땅은 어디인가. 우리가족 이대로 좋은가 2, 가족·문화 심포지움 두번째 모임 자료, pp. 91-92.
3. 김성환 등(1994). 삶과 철학. p. 115. 동녘, 서울.
4. 문숙재, 채옥희(1986). 가사노동. pp. 74-82. 신광출판사, 서울.
5. 버어, 최연실(역). 새로 보는 가족관계학. p. 393. 하우, 서울.
6. 서병숙(1991). 가정학과 윤리. 가정학과 사회윤리, 대한가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초록집. p. 28.
7. 서봉연(1982). 전통적 생활세계와 아동생활. 전통적 생활양식의 연구 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 29-92.
8. 손봉호(1996). 사회정의와 가정. 사회정의와 가정의 역할, 대한 가정학회 제 49차 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초록집. p. 2.
9. 유영주(1994). 미래의 가정 - 한국 가정의 현재와 미래. 미래사회와 가정, 대한가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초록집. pp. 21-48.
10. 윤숙현(1995a). 대학생의 가정관에 관한 연구:가족의 구조, 기능 및 가사노동에 관한 인식을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산업기술연구논문집 2:133-142.
11. 윤숙현(1995b).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정관 연구. 호남대학교 논문집 16(2):235-246.
12. 윤숙현(1996a). 자녀출산 및 양육의 의미 고찰. 호남대학교 논문집 17(2):437-446.
13. 윤숙현(1996b). 전통사회 가사노동의 의미 고찰. 호남대학교 산업기술연구논문집 3:283-292.
14. 윤숙현(1997a). 가정학의 어원변화에 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5(6):137-142.
15. 윤숙현, 문숙재(1997a). 가사노동에 관한 인식의 변화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3):153-161.
16. 윤숙현, 문숙재(1997b). 가사노동의 개인적 의미와 제도적 의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5):119-129.
17. 이길표 등(1993). 전통생활문화를 토대로 한 가사관과 오늘날의 가사분담 및 가사작업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 - 미래 가정경영의 주체자가 될 남녀대학생을 중심으로 -.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 7:100.
18. 이상옥(역)(1991). 禮記 下. 명문당, 서울.
19. 이시형(1994). 정신과 창구를 통해본 가족. 우리가족 이대로 좋은가, 가족·문화연구회 심포지움 첫 번째 모임. pp. 33-48.
20. 이차숙(1992). 한국가정생활사. pp. 89-91. 교문사, 서울.
21. 이홍우(1993). 전통가정교육의 방법적 원리. 한국인의 전통가정교육사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 131-193.
22. 장현섭, 박영숙(1994). 제멋대로 자란 아이들 - 신세대의 가정교육 -. 우리가족 이대로 좋은가 2.

- 가족·문화연구회 심포지움 두 번째 모임, pp. 59-78.
23. 전병재(1994). 현대가족은 위기인가. 우리가족 이대로 좋은가, 가족·문화연구회 심포지움 첫 번째 모임 자료, pp. 1-32.
24. 정영금(1993). 가사노동 만족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3):75-87.
25. 조혜정(1982). 전통적 경험세계와 여성. 전통적 생활양식의 연구 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 93-140.
26. 최수선(1995).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7. 파울리니, 한정숙(역)(1994). 산업혁명:영국에 있어서 공장제의 성립, 노동의 역사, pp. 253-313, 한길사, 서울.
28. 함인회(1993). 변화하는 가족과 여성의 지위, 21세기와 여성, 한국여성개발원 개원 10주년 기념 학술대회논문초록집, pp. 161-162.
29. Benin, M.H., Edwards, D.A.(1990). Adolescents' chores:The differences between dual-and single-earner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361-374.
30. Dewey, J., 이홍우(역)(1987). 민주주의와 교육, p. 12, 교육과학사, 서울.
31. Doran, E.M., Scannell, E.(1987). Husbands' and wives' household work:Moving towards Equalitarianism,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1:387-399.
32. Fromm, E.(1961).. 김창호(역)(1993). 마르크스의 인간관, p. 59, 동녘, 서울.
33. Oakeshott, M.(1991). Rationalism in Politics, Rationalism in Politics and Other Essays, new and expanded eds., pp. 5-9, Liberty Press, Indianapolis.
34. Lovett, S.B., Abdel-Ghany, M.(1988). Children's contributions to household activities in single-parent and two-parent famili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2:199-204.
35. Rettig, K.D., Metzger, N.M.(1986). Father's involvement in household activiti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0:195-207.
36. White, L.K., Brinkerhoff, D.B.(1981). Children's work in the family: it's significance and mean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Nov.:789-798.
37. Witiner, J.G.(1980). Domestic Labor as Work Discipline: the struggle over housework in foster homes. In: Berk, S.F., eds. Women and Household Labor. SAGE Publications, London.